

2021년 3월호

Vol. 312

홍미진진 공주

3.1중앙공원

—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3월,
민족의 뜨거웠던 함성이 들릴 것만 같은
이달 유관순 열사의 발자취를 따라
공주를 여행하는 건 어떨까요?



유관순 열사상

의정 활동 소식

공주시의회,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참여

“진정한 지방자치 위한 초석 마련할 것”

공주시의회는 지방자치 분권 2.0시대 개막을 알리고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에 대한 다짐을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고자 시작했다.

시의회는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방분권 2.0시대는 지역중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지름길”이라며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올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공주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중운
의장



박기영
부의장



서승열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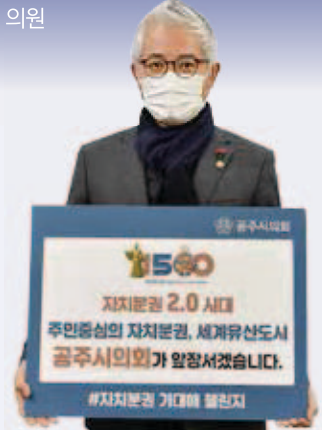
임달희
의원



김경수
의원



이상표
의원



이맹석
의원



시민예술공간 유화작품 전시

2월 27일까지 유화 21점 선보여

공주시의회는 2월 1일부터 27일까지 시의회 시민예술 공간에 유화작품 21점을 전시했다. 지난 전시회는 공주시 평생학습 특성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강생들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임림미술관 임림관장이 마련한 ‘캔버스에 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학습해 완성한 작품들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거친 듯 따뜻한, 소박한 듯 화려한 이중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유화 아닌가 싶다”며,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이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재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예술공간

코로나19 극복 사랑의 헌혈 실시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실천

시의회는 1월 25일 공주대학교 헌혈의집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단체 헌혈 활동에 동참했다.

지난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관내 기관 방문 및 위문품 전달이 어렵게 되자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혈액 보유량 감소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감염 우려에 단체 헌혈 기피로 혈액 수급이 악화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겨울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집단 발생을 우려해 헌혈의 집 발길이 뜸해져 환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헌혈이 의료현장과 혈액 부족 상황을 극복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혈의집

‘플라스틱 줄이기 챌린지’ 캠페인 참여

친환경 사회를 위한 노력 다짐

시의회는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줄이기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플라스틱 줄이기 챌린지’ 캠페인은 환경부에서 시작한 것으로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1가지와 할 수 있는 일 1가지를 약속한 뒤,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생활 속 작은 행동부터 바뀌나가야 한다”면서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비닐 대신 에코백 등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할 것이며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운
의장



박기영
부의장



임달희
의원



김경수
의원



정종순
의원





새해는 혁신적 지역균형 발전과 도약의 해



이종운
공주시의회 의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국가경제 기반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발전주의 국가’의 경로를 택해 ‘한국의 기적’을 달성했으나 투자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 아래 특정 지역이나 계층이 희생되는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됐다. 8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 방지를 위해 인구 지방분산 정책을 주요 기조로 삼았고, 주요 정책을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하향적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각 지역별 시민들의 만족도는 충족될 수 없었다.

2000년대 이후 노무현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국정 과제로 격상해 기존 중앙부처에서 산발적·분산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통합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호작용을 통한 혁신’을 이루고자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강화했다.

허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지역에 강제로 할당하는 중앙집권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시책이 경쟁적으로 추진됐고 오히려 지역불균형이 초래되는 결과를 낳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 들면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비전 아래 ‘분권·포용·혁신’을 가치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설계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도입, 지역특화 산업 및 광역협력권 산업의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생활 SOC 복합화사업 등 지방정부 주도의 문제해결,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코로나19,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 발전에 낙후되지 않으려면 시민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 한목소리를 내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도모하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목표를 정립해가야 한다.

역량이 혁신을 만들고, 혁신이 보다 많은 발전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다시 강화하는 선순환 속에서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지역 불균형은 해소되어 갈 것이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2021년 혁신적 지역균형발전을 이뤄가는 도약의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 ● ●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하자



박기영
공주시의회 부의장

지난해 10월, 정부의 충남혁신도시 지정 의결에 공주시와 시민들은 일제히 축하 현수막을 내걸고 크게 반겼다. 공주시의회도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공주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 왔다.

이는 세종시 출범으로 인구감소·재정 손실 등의 역차별을 받고 있는 공주시의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고, 공주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을 원하는 공주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공주시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내포 신도시가 충남 혁신도시 입지임을 밝히고,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일부 시·군의 공공기관 유치 움직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경쟁'이라 규정했다. 사실상 공주시를 포함한 각 시·군의 공공기관 유치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충남도는 혁신도시기관이전추진단 구성을 결정하고 산하 자치단체의 움직임을 초장에 차단하려는 모양새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대다수의 공주시민들은 공주시를 대하는 정부와 충청남도의 행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세종시 출범을 위해 시세위축도 감수해왔고 인구유출 등의 뼈아픈 어려움도 감내해왔는데 정부나 충남도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일제강점기 대전으로의 도청 이전부터 세종시 출범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공주시는 그저 뽕섬의 정치판에 휘둘려왔다. 이제는 뽕섬의 과거를 극복하고 덧섬, 곱섬의 미래를 향한 시작점에 서야한다. 그 시작점은 바로 혁신도시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가 돼야 한다.

필자는 충청남도의 기관유치 입장과 관련해 도청을 항의 방문, 공주시의 절박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충청남도의 기관유치 입장에 대한 항의문'을 전달하는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관련해서 시에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범시민 공공기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내 역량 결집과 공공기관 유치의 동력을 확산시켜 추진해 나갈 것도 강력하게 요청했다.

공주시가 더 이상 중앙정치 무대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립국악원 충청분원을 유치하고 도 산하기관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제는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이다.

이번에도 유야무야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간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영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공주시와 시민들이 모든 에너지를 한곳으로 집중시켜 공공기관이 유치되는 그날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